

배우 이재욱 “환혼, 도전에 의미…국내 성적 미미하지 않죠”

tvN ‘환혼’ “국내보다 해외 반응 뜨거워”
“바라던 해피엔딩으로 끝나 만족스럽다”

이재욱(25) 주연 tvN 종방극 ‘환혼’은 국내보다 해외 반응이 뜨거웠다.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톱10에 들었지만, 파트1·2로 나눠서 방송해 국내 시청자 몰입도는 떨어졌다. 파트1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파트2는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묻힌 면이 없지 않다. K-콘텐츠가 촬영 초반 여주인공 박혜은이 하차, 정소민이 투입됐고 파트2에선 고윤정으로 교체됐다. 약 1년간 매달렸는데, 시청률도 6~8%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장욱’ 캐릭터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국내 성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환혼은 판타지 로맨스 활극으로 국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이다. 도전의 의미로 선택했다. 목표치를 정해둔 건 없지만, 이 정도의 화제성을 가진 것만으로 감사하다. K-콘텐츠가 인기가 많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 번씩 본 것 같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공항에서 환대해줘 감회가 새로웠다. 한 해외 팬이 ‘한국 갈 때 자기도 태워서 가라고 해 놀랐다.’

이 드라마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이들의 이야기다. ‘호텔텔루냐’(2019) 흥행·홍미란 자매 작가와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 박준화 PD가 만들었다. 파트1은 천하제일 살수 ‘무덕이’(정소민)와 대호국 장제 집안 도련님 ‘장욱’(이재욱)의 사제 로맨스를 담았다. 파트2는 장욱이 3년 뒤 죽을 끝에서 살아 돌아온 모습이 그려졌다. 마지막회에서 장욱과 낙수 ‘진부연’(고윤정)은 세상을 구하고 부부가 됐다.

조반에는 역사·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대호국을 배경으로 해 낯설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았다. “새로운 환경이었다. 대호국, 송림 설정 등이 어려웠는데, 내가 알아야 잘 설명

할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했다”며 “어떤 걸 말로 끝낼까?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 많았는데, 바라던 해피엔딩으로 끝나 만족스럽다”고 털어놨다. “총 30부작의 긴 호흡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 2%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작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에 더 잘 하자’라고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1에서 장욱은 귀엽고 개구쟁이라면, 시즌2에선 어두운 모습이 강조됐다. “3년 후 장욱의 모습은 완전 상반돼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작가님도 다른 인물로 보여주기 원했다”며 “파트1 극본을 봤을 때 장욱의 유머러스하고 소신있는 모습이 나와 비슷했다. 파트2에선 침체되고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혼자만 작가님 특성상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걸 안 좋아해 조금 숨겼다. 평소 쓰는 말투도 아꼈다”고 설명했다. “파트1 때 72kg에서 4~5kg 더 빠졌다. 파트2에선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죽다 살아온 캐릭터라서 살을 빼다”며 “중간에 힘들어서 더 빠진 것도 있다. 파트1과 전혀 다른, 차가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너무 아쉬웠다. 밥 좀 먹여라’는 댓글도 있더라”고 웃었다.

복합 장르물이라서 처음 도전해본 것도 많다. 액션신은 직접 소화했다며 “파트1 4부에 팔을 통제하지 못하는 신이 있다. 팔에 와이어를 달아서 당길지, 현대 무술가 대역을 쓸지 논의하다가 내가 욕심을 냈다. 공중에서 와이어를 타고 세 바퀴 도는 등 힘든 신은 대역 힘을 빌렸고, 나머지 95% 이상은 내가 했다. 이번에 도구를 사용하는 액션의 매력을 느꼈다. 다음엔 총을 사용하는 액션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컴퓨터그래픽(CG) 신은 상상하며 연기해야 해 민망했을 터다. “너무 어려웠다. 감독

님과 CG팀, 배우가 느끼는 게 다 달랐다. 현장에서 하나로 맞추는 작업을 했다”며 “없는 걸 상상해서 연기했는데, 그만큼 구현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욱은 워낙 사건·사고가 많고, 여러 환경을 겪고 자라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소신 하나로 싸웠다. 가끔 ‘이재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못 할 것 같더라. 그래도 이해 안되고 어려운 장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욱은 여주인공 교체에도 중심을 잡았다. “현장은 항상 새로움의 연속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우려도 많았지만, 장욱 캐릭터 분석하기도 급급했다”고 털어놨다. “소민 선배는 작품을 많이 해 현장에서 확실히 노련했다. 상황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잘 캐치하더라. 경험에서 나오는 걸 무시할 수 없었다”며 “윤정 누나는 밝고 긍정적인데, 현장에서 사람 한 명이 밝을 때 ‘에너지가 다르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둘 다 다른 매력이 있다. (무덕이와) 사제 로맨스는 티키타카였다면, 부연과는 한층 성숙했다. 특히 육과 부연 키스신은 감독님이 욕심을 내 힘을 쥐서 찍었다. 극본에는 ‘입 맞추는 육과 부연’이라고만 써있었고, 감독님이 (고윤정에게) ‘내 몸을 잡고 벽에 밀치라’고 했다. 나와 윤정 누나는 머리가 하얗질 정도였다. 키스신을 찍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났다. ‘너무 진하다’는 팬들도 많더라. 팬 입장에서 속으로 삼켜줘야 하는 부분이다. 내가 격정적으로 찍으려고 한 건 아니다.”

환혼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고 싶을지 궁금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등 업계 최고인 분들의 몸에 들어가 싶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진 후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일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느끼고 싶다”면서도 “막상 환혼할 수 있어도 안 할 것 같다. 단계를 밟아가고 싶다”고 했다.

데뷔 5년 차인 이재욱은 스스로 “신인 배우”라고 칭했다. 2018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데뷔, 1년만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어허루’) 주연을 맡았다. ‘어허루’가 10~20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의 팬층이 두텁게 쌓였다. “작품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표현하는데, 시청자 시선일 뿐이다. 환혼을 찍을 때도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바로 주연으로 발돋움한 데는 “어디트 페이스’가 한 몫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 나이 많은 역을 많이 맡았는데, 감독님이 상황에 맞게 캐스팅을 잘 해줬다. 내 매력을 스스로 끄기는 그렇지만, 겁이 없고 거침없다. 항상 도전하고 재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대체할 수 없다’

는 마음가짐도 장점”이라고 짚었다.

“항상 기대치가 높다 보니, 작품이 잘 안 되면 나도 힘들다. 모순될 수도 있지만, 이런 힘들음을 좋아하고 즐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해야 보완할 수 있을까?’ 돌아본다. 이 방향성으로 ‘다시 도전해보자’라고 다짐하는 편이다. 정체 되거나 매너리즘이 오는 성격은 아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을 좋아한다. 누아르 장르의 항상 욕심이 난다. 아직 어리다 보니 경험을 쌓아서 무게감을 갖고 싶다.”

‘재미없어→사랑해요’ 맞춤형 놀이법 온다



ENA 새 예능물 ‘오은영 게임’

우 이민정이 MC로 함께한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오은영 박사와 MC 신동엽·이민정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5가지 발달 유형인 관계, 신체, 언어, 인지, 정서가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해 포스터 곳곳을 뛰어놀고 있다.

이어 예고편에는 “아빠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이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모든 부모의 고민이 담겼다.

정준호는 “이것만큼은 잘하지 않을까?”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들과 아빠들의 놀이는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재미없어. 엄마는 잘 했는데”라며 시무룩해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놀이가 있다”며 특급 비밀을 예고, 아빠들은 다시 직접 놀이에 도전한다. 오은영 박사는 “이 열쇠를 부모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인가를 전수했고, 아빠들의 모습이 달라지자 아이들도 “그냥 다 좋아. 감사해요”라고 애정을 표현하며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다.

오는 24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아이에게 맞는 놀이 처방전을 내린다. ENA 새 예능물 ‘오은영 게임’은 놀 줄 모르는 부모와 손주들의 육아에 지친 조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나이·성별·성향이 다른 아이 100명이 출연해 유형별 놀이를 추천한다. 오은영 박사를 비롯 개그맨 신동엽, 배

‘아바타:물의 길’ 글로벌 수익 17억 달러 돌파

영화 ‘아바타:물의 길’이 미국에서 4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전 세계 총 수익은 17억 달러를 돌파, 역대 흥행 순위 7위로 올라섰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아바타:물의 길’은 6~8일 전미 4340개관에서 4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아바타:물의 길’은 지난해 12월16일 미국 개봉

이후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로써 미국 내 매출액은 5억 달러를 돌파했다(5억1680만 달러).

‘아바타:물의 길’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은 17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수익 5억1680만 달러에 미국 외 나라에서 11억9130만 달러를 벌어들여 총 수익 17억800만 달러(약 2조1300억원)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역대 흥행 순위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정현, ‘동적 vs 정적’ 1인 2역 완벽 소화 예고…‘꼭두의 계절’



배우 김정현이 열정 가득한 작품 준비 과정을 전했다.

오는 27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려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 ‘꼭두’(김정현)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왕진 의사 ‘한계절’(임수향)을 만나 벌이는 판타지 로맨스다.

작품마다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김정현

MBC 새 금토드라마, 오는 27일 방송 예고

이 ‘꼭두의 계절’에서 이 세상 존재가 아닌 ‘꼭두’ 역과 의사 ‘도진우’ 역을 맡았다. 존재 방식조차 다른 두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낼지 관심이 모인다.

김정현은 작품의 첫 인상은 “천방지축 같았다”며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를 떠올렸다. “꼭두의 성격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작품과 캐릭터 둘 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에 끌렸다”며 예측불가한 이야기 전개와 역할 사이의 시너지를 집작하게 했다.

그는 “꼭두는 매우 동적이고, 도진우는 꼭두에 비해 정적”이라며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꼭두는 표현의 크기를 상상보다 더 크게 가져가려 했고, 도진우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의상뿐 아니라 목소리 톤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정현은 “1인 2역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

다 각 인물이 갖는 장면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할 김정현의 열정이 느껴져 그가 완성할 꼭두와 도진우의 시작과 끝이 더욱 궁금해진다.

그가 ‘꼭두의 계절’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김정현은 “작품 자체에 흐름을 맡겨 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은 “꼭두’가 출고 긴 겨울을 지나 계절을 만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가며 여름의 햇살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낙엽처럼 사그라들 듯 ‘꼭두의 계절’이 쓸쓸하지만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란다”며 “봄으로 시작해 가을에 저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케플러, 日 오리콘 ‘아티스트별 세일즈’ 신인 랭킹 1위

연간 음악 소프트웨어·디지털 총 매출액 합산해 순위 정한 차트

그들 ‘케플러(Kep1er)’가 일본 오리콘 연간 랭킹 1위에 오르며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9일 소속사 웨이크원·스윙엔터테인먼트는 케플러가 ‘제55회 오리콘 연간 랭킹 2022’ 중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에서 신인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트는 신인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집계기간(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11일) 내 싱글 앨범, 스트리밍, 뮤직 DVD 등 연간 음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총 매출액을 합산해 순위를 정한 차트다.

케플러는 “항상 응원해 주시는 케플러인 덕분에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됐다. 케플러인과 음악을 통해 처음으로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께

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드릴테니 기대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케플러는 지난 30일 ‘제64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K팝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특별상(SPECIAL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일본 데뷔 싱글앨범 ‘플라이 업(FLY-UP)’은 2022년 9월 기준 누적 출하량 10만 장을 넘기며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 음반 인증을 받았다.

‘와 다 다(WA DA DA)’는 일본 현지 누적 재생 횟수 1억 회를 돌파하며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2022년 10월 기준)을 받았고, ‘유튜브 팬페스트 2022 (Youtube Fanfest



Japan 2022’에선 ‘일본 내 톱 뮤직비디오 랭킹 2022’ 7위에 K-POP 팀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케플러는 ‘제64회 일본 레코드 대상’과 일본 대표 음악방송 ‘CDTV 라이브! 라이브!’에 연달아 출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